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첫 번째 이야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의 최종목적지, 국민감동입니다.



행정안전부



부산시 남구

WALKING THRU



코로나 검사부스 직접 개발 · 최초 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전



검사자와 피검사자가 한 공간(음압텐트)에서 검사 진행하여
검사비용과 검사시간이 많이 들고 2차감염 우려도 높은 상황

과정



- 안여현 의무사무관은 음압텐트 검사방식 개선을 위해 글로브-박스 타입 부스모형을 직접 스케치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험하여 검사현장에 최초 도입('20년 3월초) 후
- 대규모 신속검사 수요를 고려하여 최초 모델을 양방향 워킹스루
검사부스로 진화('20년 3월말)

효과



검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1시간→25분)하고 2차감염 위험 감소시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개발 · 보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종전



배달시장 활성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은 민간배달앱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수수료 · 광고료 등 비용부담 증가

과정



군산시 소상공인과는 공공배달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등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건부 추진 결과를 도출('19.5.23.), 법률자문을 거쳐
배달사고 및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를
개발 · 출시('20. 3.13.)

효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기반은 넓혀
골목상권에 신바람



세종특별자치시



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한 개인물품 반입 규제 완화

종전



개인이동수단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 운송약관에는 명시적 반입규정이 없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빈번한 다툼 발생

과정



세종시 교통과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운송약관 개정계획을 수립('19.10월)하고 운송업체와 수 차례 협의를 거쳐 현실을 반영한 운송약관 표준안을 마련, 유관기관 검토 후 버스운송약관 표준안 고시('20년 2월) 및 운송업체별 약관 변경신고 시행

효과



개인이동수단(킥보드, 접이식 자전거 등)에 대한 조건부 반입 허용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 가능



경기도 광주시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종전



보관창고용 가설건축물이 주로 천막으로 지어져 내구성이 취약하여 활용도가 낮고 주기적 교체비용 발생으로 기업 경영 애로 지속

과정



광주시 기업SOS팀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광주시 고문변호사 자문('18년 8월)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19년 2월)를 거쳐 광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가설건축물 재질에 '강판'을 포함('20.2.24.)

효과



합성강판을 사용하여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고 창고 재설치 비용 절감으로 관내 6천여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대전 유성구



네일아트업 간이과세 업종 지정으로 창업 애로 해소

종전



네일아트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임에도 피부미용업과 함께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되어 소상공인 영업 및 청년 창업에 애로

과정



유지창 주무관은 동네 네일샵 이용 중 업계의 불만을 전해 듣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년. 11월) 시 규제개선 건의를 하였고 소규모 네일아트업을 간이과세 업종에 포함하는 국세청의 「202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20년 1월)을 이끌어 냈

효과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로 전국 1만여 영세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